

## 미국의 對콜롬비아 마약 전쟁: 현실주의 외교 논리의 문제점

이성형(이화여대 정치학과)\*

- I. 서론
- II. 미국의 대 콜롬비아 마약정책의 계보
- III. 마약전쟁의 효과
- IV. 결론

### I. 서론

2000년에 클린턴 행정부의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가 출범한 이래 미국은 지난 3년간 콜롬비아에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마약전쟁에 나섰다. 하지만 공급영역에서 마약 생산량을 줄여 국내 마약소비를 줄이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낳지 못했다. 이 대대적인 마약전쟁이 콜롬비아 국내는 물론,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이미 콜롬비아의 정치질서는 마약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고, 통치조차 힘든 실정이다(Estrada 2003; McLean 2002a, 2002b). 최근 들어 미국의 대대적인 개입과 군사원조는 가뜩이나 힘든 이 나라의 정치질서를 더욱 폭력의 소용돌이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논자까지 등장하고 있다<sup>1)</sup>.

\* Sung-Hyong Rhee(Ewha Womans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shrhee@ewha.ac.kr),  
“United States’ War on Drugs in Colombia: the Perverse Effects of Over-Securitization”.  
1) 프랑스의 비판적 월간지 *Le monde diplomatique*는 플랜 콜롬비아를 “콜롬비아의 베

플랜 콜롬비아를 통한 마약전쟁은 이웃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쳐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인접국인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이 접경 지역에서 이미 마약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유민의 유입, 코카 발의 확산, 게릴라와 우익 민병대의 잦은 출현으로 이웃 정부들도 이 마약전쟁을 반감지 않은 손님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9.11 테러 사태 이후 부시 행정부가 그 방향을 ‘마약 테러리즘’(Narcoterrorism)의 박멸로 수정한 결과 ‘마약 전쟁’(War on Drug)은 대테러 전쟁의 차원을 띠게 되었다. 2002년에 들어선 알바로 Uribe 정부도 미국의 대테러 전쟁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마약 퇴치와 게릴라 퇴치에 공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예산과 인력이 동원된 미국의 마약 퇴치전략이 지난 수십년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결과를 낳았을까? 공급 측면에서 마약의 유입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이미 수많은 정책에서 표명되었고, 또 의회에서 승인된 수십억 달러의 예산으로 뒷받침된 바 있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미국 내 마약의 유입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대 콜롬비아 군사원조는 6,900 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15배나 증액되었지만, 코카 생산면적은 되려 67,200헥타르에서 169,800헥타르로 150%나 늘었다(<표 1> 참조). 이와 더불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은 가뜩이나 허약한 콜롬비아 정치질서에 나쁜 영향을 주었고,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생태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제 콜롬비아는 ‘허약한 국가’(weak state)의 차원을 떠나 ‘국가의 붕괴’(state collapse)를 걱정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McLean 2002b).

이 글은 1980년대 이래 미국의 대 콜롬비아 마약정책의 경과를 살펴보고, 그것의 근간이 된 현실주의 외교 논리의 한계를 주목하고자 한다. 왜 수많은 군사원조비에도 불구하고, 코카 재배지는 줄지 않고 있는가? 현실주의 외교 논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

트남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줄기차게 비판한 바 있다. 멕시코 계 저널리스트인 Alma Guillermoprieto(2002) 역시 폭력의 스파이럴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더불어 공급 측면에서 마약 문제를 접근하는 군사원조와 군사적 해결책이 콜롬비아 정치와 지역질서에 미친 파괴적 영향을 살펴보면 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II. 미국의 대 콜롬비아 마약정책의 계보

### II.1. 현실주의와 마약전쟁: 1980년대

1982년 레이건 행정부는 국내에 급증하는 마약 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퇴치 전략을 선포했다. 연방정부는 이 마약퇴치를 위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1989년에는 63억 달러까지 증액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요소는 미국 군부가 국내와 국외에서 마약 퇴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이었으며, 마약 생산지(source)와 이동경로(transit)가 되는 국가들에도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레이건 행정부는 임기 내내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전략에 골몰했고, 예산의 70% 정도는 공급측면 프로그램에 투입했다(Bagley and Tokatlian 1992, 216). 마약퇴치 프로그램에 ‘전쟁’이란 극적인 수사도 부가되었다. 1986년 4월 ‘마약전쟁’(war on drugs)이란 용어가 ‘국가안보결정문 221호’에 등장했다. 이제 마약거래는 미국의 안보이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규정되었고, 미국 군부는 마약퇴치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 해 7월에 미군은 볼리비아의 마약퇴치 작전에 직접 투입되었다. 같은 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마약퇴치법안도 주 내용이 금압과 형사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제 마약퇴치 전선이 하나의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음을 암시했다.

마약문제를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힘과 무력에 의존한 군사적 해결책으로 풀려는 레이건 행정부가 1980년대에 실행한 일련의 노력을 배글리와 토카틀리안은(1992) “마약퇴치 국가안보

레짐”(Antidrug National Security Regime)이라 부른다. 이 레짐은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정당성(legitimacy), 신뢰성(credibility), 대칭성(symmetry)의 측면에서 흠이 많았고, 따라서 마약퇴치에 크게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첫째, 레이건 행정부는 일방주의적인 조치로 마약전쟁을 끌어갔기에, 정당성이 결핍되어 있었다. 정책의 우선 순위는 워싱턴에서 결정되었고, 협상의 여지가 없었으며 현지 사정은 간단히 무시되었다. 둘째, 마약의 ‘소스’에서 생산을 차단한다는 논리가 앞섰기에, 국내의 수요 억제책이라든가, 마약정제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수출을 통제한다든가, 재래식 무기 거래를 억제하고, 돈세탁을 방지하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아서 신뢰성이 높은 퇴치 전략이 되기 힘들었다. 셋째, 경기규칙을 강제하는데 소요되는 인적, 제도적, 경제적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기에 대칭적인 레짐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레이건 행정부는 마약거래를 국가안보에 대한 ‘대외적 위협’(external threat)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이 대외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당사국에 대외적인 압력을 행사했고,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했다.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에는 군사원조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이 동원되고, 이에 따라 당사국은 미국의 정책적 목표에 협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밑바닥에는 다분히 현실주의(realism) 시각의 국제정치관이 깔려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실주의 국제정치관은 국가 행위자들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다. 국제체계는 어차피 무질서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국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가 스스로 자조(自助) 전략을 취해야만 한다. 마약거래는 이미 미국의 국내 질서에 상당한 피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 폴리틱스(high politics)로 다뤄져야 하고, 당연히 민주주의, 인권, 빈곤퇴치, 환경 등과 같은 로우 폴리틱스(low politics)보다는 우위에 놓인다(Bagley and Tokatlian 1992, 216-8).

레이건 정부 이래 역대 행정부가 마약전쟁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이런 특징을 지닌 현실주의 사고방식이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서반구에서 공산주의를 대신하여 등장한 새로운 적이 마약이라고 보

왔다. 이제 서반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된 위협요소는 마약과 마약 조직들이다(Tickner 2003, 78). 레이건 정부는 일찌감치 마약전쟁(War on Drug)을 ‘저강도 갈등’(low intensity conflict)으로 분류하고, 그 대상에 마약거래 조직들도 포함시켰다. 이런 분류방식에 의해 마약근절 정책(counternarcotics)은 곧 봉기진압(counterinsurgency)의 차원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뒤이은 부시 행정부(1988-92)에서도 그대로 계승된다. 1989년 9월 국방부 장관 리처드 체니는 “불법 마약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것을 포착하고 억제하는 것이 (펜타곤의) 최우선적, 국가안보 차원의 의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부시 행정부는 마약 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파나마의 노리에게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침공을 감행했고, 아울러 콜롬비아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콜롬비아의 영해에 미국 함대를 보내 항의를 받기도 했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군사적 개입은 부시 행정부 시절에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 ‘마약 차르’(Drug Czar)였던 윌리엄 베넷은 그린 베레를 안데스 코카 밭에 직접 투입해야 하며, 멕시코의 허락 없이 첩보위성을 이용하여 감시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Bagley and Tokatlian 1992, 231).

부시 행정부의 마약정책이 군사화되고 있는 조짐은 ‘안데스 전략’(Andean Strategy)에서도 잘 드러났다. 부시가 1989년에 콜롬비아를 지원했던 것도 6,500만 달러어치의 재래식 무기였다. 정작 콜롬비아가 원했던 것은 첩보수집 장비와 약화된 사법기구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었다. 뒤이어 2억 6천 1백만 달러의 대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원조도 거의 대부분 군부와 경찰에 대한 지원이었다. 1991-95년에 할당된 22억 달러의 지출예산도 대안적 개발, 보건, 제도개선 보다는 군사원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Bagley 1992, 137-8).

레이건 시절부터 부시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외마약 정책의 기초는 현실주의에 기초한 일방주의이다. 이들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영역에서 힘과 군사력으로 마약의 유입을 억제하려고 했다. 따라서 복잡한 마약문제를 국가 안보적 차원의 대외위협으로 정형화

시켰다. 이런 단순화된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마약게릴라론’(narcoguerrilla theory)이다.

‘마약게릴라’란 용어는 1980년대 당시 콜롬비아 대사를 지냈던 루이스 탬스(Lewis Tambs)가 콜롬비아혁명군(FARC)을 비판하면서 불렀던 말이다. 원래 게릴라 단체로 출범했던 이 세력이 이제는 코카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보호해주고, 대신 세금을 걷는 것을 비꼬았던 것이다.<sup>2)</sup> 그러나 마약 카르텔이 지원하는 조직 MAS(Muerte a Secuestradoras: 게릴라, 노조 등의 활동가나 지지자를 암살하는 민병대 조직으로 후일 AUC로 발전한다)도 1980년대 초부터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FARC에만 이런 조어를 쓴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도 했다.

1980년대에 별로 인기가 없던 ‘마약게릴라’란 용어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 미국과 콜롬비아에서 점차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아울러 저강도 전쟁의 봉기진압 대책 차원에서 마약게릴라를 볼 것을 주문하는 논의도 나왔다. 1996년 당시 국무부 차관이었던 로버트 겔바드는 콜롬비아 혁명군(FARC)이 메데인과 칼리 카르텔을 뒤이은, 제3의 거대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바 있었다(Tickner 2003, 79). 당시 콜롬비아 대통령으로 대선 시절 마약 카르텔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던 삼페르 대통령도 상황의 힘에 밀려서 ‘마약게릴라’(narcoguerrilla)란 말을 썼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 용어를 받아들인 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말기인 2000년 11월이었다. 이 시기에 미국 행정부는 FARC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총수 아레야노 펠릭스와 거래하고 있다고 보았고, 아울러 콜롬비아 남부에서 이들이 통제하는 대규모

2) 대표적인 좌익 게릴라 세력으로 군사력은 15,000명에서 17,000명을 헤아린다. 두 번째 게릴라 세력은 ‘민족해방군’(ELN)이다. 이들은 도시의 급진화된 중간계급 출신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며, 약 5,000명에서 7,000명을 헤아린다. M-19란 게릴라 단체도 과거에 활동했지만, 1980년대 중반에 무기를 내리고 의회정치에 합류하며 해소되었다. 게릴라 단체들은 지역적으로 고립화된 콜롬비아 지형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정부’로 기능하고 있다. 게릴라 단체의 장기적 존속은 콜롬비아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방증한다. 이와 더불어 우익 성향의 준군사조직 ‘콜롬비아 통합우익 민병대’(AUC)의 병력 수는 12,000명에서 14,000명을 헤아린다. 이 조직은 재원의 70%를 마약거래에서 조달한다.

코카 필드를 확인하면서, ‘플랜 콜롬비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에 주요 카르텔이 쇠퇴하자, FARC는 마약거래의 주요한 부분을 장악했다고 미국은 믿었다. 미국은 허약한 콜롬비아 국가가 마약계털라들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계털라 통제구역의 마약화를 막기 위해 군사원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가 플랜 콜롬비아라 불리는 13억 달러의 원조안이었다. 이 플랜은 레이건, 부시 시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군사원조를 더욱 큰 규모로 확대한 것이었고, 기존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 II.2. 플랜 콜롬비아: 클린턴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는 칼리 카르텔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유입한 혐의를 받고 있던 삼페르 정부(1994-98)를 불신하였던 까닭에, 1996년에 대통령의 미국 비자까지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 차원의 협력이나 연계마저 사라지자, 경제 제재의 위협에 직면한 삼페르 정부는 오히려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미국의 현실주의적 위협 외교가 잘 먹혀들어갔던 것이다. 삼페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유예시켰던 범죄인 인도조약을 회복하고, 강력한 고엽제 살포 정책을 수용하였다. 또 적극적인 마약 카르텔 소탕작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양대 세력인 메테인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 조직은 점차 와해되었다. 하지만 마약거래 조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거대 카르텔은 보다 작은 단위로 분화되면서 수평적으로 확산되었고, 수면 아래 가라앉은 상태로 활동하여 향후 이들의 검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Tickner 2001, 48).

1998년 파스트라나 행정부(1998-2002)가 들어섰고, 대통령은 ‘평화, 번영, 국가 강화를 위한 플랜’에 75억 달러의 원조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파스트라나는 콜롬비아의 문제가 단순히 마약과 계털라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니라 종합적 처방이 요구된다는 점을 내외에 강조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판 ‘마살 플랜’을 제안하였다. 클

런던 대통령은 곧 그와 만나 ‘마약퇴치 동맹’(Counternarcotics Alliance)을 맺었고, 적어도 마약 전쟁에 관한 한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당시 행정부 내에서는 콜롬비아가 ‘문제국가’(problem state)로 서반구의 지역안정에 가장 우려를 자아내는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상황을 내버려두면 콜롬비아의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고, 나아가 허약한 국가기구도 무너져버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당연히 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의 초점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McLean 2002b).

2000년 7월 워싱턴의 의회는 2000-2001년 2년간 총 13억 달러의 원조안을 승인하였다. 콜롬비아는 일약 미국의 군사원조 수혜국가로서 이스라엘, 이집트를 이어 제3위 국가로 부상했다. 원조액 가운데 25%는 인권, 사법부 개혁, 법치, 난민 지원, 평화 등에 사용될 것이지만, 나머지 75%는 곧 군요원 훈련, 장비 구매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원조액은 대단히 컸지만, 그 내용은 파스트라나가 제시한 종합적인 ‘마살 플랜’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첫째, 플랜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남부를 압박하는 전략(“Push into Southern Colombia”)에 초점이 맞춰졌다. 75%에 해당하는 군사원조액의 대부분이 남부 푸투마요와 카케타 지역에 있는 3개의 마약퇴치대대(1개 대대는 900명 단위로 총 2,700명 규모이다)의 훈련비용과 고가의 장비 구매에 들어갈 예정이었다.<sup>3)</sup> 푸투마요는 FARC가 코카 재배 농민을 보호하는 지역일 뿐 아니라, 코카인 정제공장과 소형비행기 세스나가 이착륙을 하는 비행장도 많은 곳이었다. 고엽제 살포를 지원할 3개 마약 퇴치 대대가 이용할 고가의 헬리콥터(18대의 신형 UH-60 블랙호크, 42대의 슈퍼-휴이 UH-1 헬리콥터) 구매에 배정된 자금만 3억 5천만 달러였다. 대대들은 이 헬기들을 이용하여 기동력을 향상시키고, 또 고엽제 공중살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측면

3) 헬기 회사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United Technologies)와 텍스트론(Textron)은 플랜 콜롬비아를 지지했던 의원들의 주된 정치자금 공급자란 의혹도 받았다(Adelman 2002, 68).

지원하는 임무를 떠맡았다.

둘째, 이전 원조와 달리 수혜 집단은 국립경찰이 아니라, 군부였다. 군부의 역할은 약화되어가는 국가의 새로운 건설자로 재규정되었다. 하지만 군사원조 자체가 군부와 FARC의 투쟁을 격화시키고, 나아가 '콜롬비아의 군사화'를 강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셋째, 클린턴 행정부는 원조기금을 수혜한 마약퇴치 단위들의 작전은 직접적으로 마약 통제에 연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고 꼬리표를 달았다. 명시적으로 마약퇴치(anti-narcotics)와 봉기진압(anti-subversive)을 구분했다고 하지만, 양자의 경계는 압도적인 군사적 성격의 원조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

넷째, 미국인들의 참여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고엽제 살포나 경계 활동에 민간기업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형식을 취했다. 플랜 콜롬비아에 직접 동원된 미국인의 숫자는 160-180명 수준이라고 하나, 비미국인을 포함하면 민간인의 숫자는 300명을 상회한다. 민감한 대외 지원 활동을 민간기업이 담당할 수 있느냐는 신뢰성의 문제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2001년 4월 미국 선교사 일행을 태우고 페루 상공을 날던 비행기를 추락시킨 사고에 민간기업의 계약자가 연루되어 책임성 논란이 일어났다.

다섯째,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군부의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클린턴 행정부는 마약퇴치 대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아울러 군부나 경찰이(인권침해로 악명이 높은) 민간우익 민병대 그룹과 관계를 끊었다는 인증 절차를 밟도록 했다. 콜롬비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패트릭 리하이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군부의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퇴치에 투입된 대대들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고, 매년 이를 인증(certification)하는 의무를 익년의 원조와 연계시켰다.<sup>4)</sup>

4) 리하이 수정법안(Leahy Amendment)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콜롬비아 대 통령은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직책의 군부 인사 전원을 민간법정에서 재판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2. 콜롬비아군 참모총장은 인권침해나 민간우익 민병대 집단을 도운, 책임이 있는 직책의 모든 군부 인사 전원을 해임한다. 3. 인권침해에 연루

플랜 콜롬비아를 통해 콜롬비아의 마약전쟁은 격화일로를 걸었다. 푸투마요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코카의 2/3가 생산되는 지역이자, 또 게릴라 FARC가 코카 농민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지대이기도 했다. 곧 이 지역에 대한 제초제의 대량살포가 행해졌고, 게릴라와 정규군의 충돌이 빈번해졌다. 1999년에 4만 헥타르의 코카 밭에 제초제가 뿌려졌지만, 2000년에는 그 대상이 8만 헥타르로 늘어났다. 하지만 코카 생산량은 줄지 않았다. 코카 밭은 다른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서 또 이동하고 있었다.

FARC는 플랜 콜롬비아를 “은폐된 전쟁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게릴라 단체는 미국의 외부개입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곧 이들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암살과 납치, 농민의 대중적 동원에 힘을 쓰기 시작했고, 콜롬비아 정국은 다시 폭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 II.3. 마약테러리즘 논리의 확산: 9.11 테러의 충격

현실주의 논리에 따른 미국의 국가안보관은 마약전쟁을 ‘마약게릴라에 대한 투쟁’으로 비화시켰다. 마약퇴치와 게릴라 퇴치를 엄격히 구분한 클린턴 행정부의 플랜 콜롬비아도 구체적인 실행에서는 거의 양자를 구분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혼동은 부시 행정부(2000-2004)가 출범하고, 갑자기 찾아온 2001년 9.11 테러 사태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9.11 테러 사태는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부 내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얻게 된 신보수주의

---

된 책임이 있는 보직의 군부 인사에 대해 민간법정이 조사를 하고 기소할 경우 육군은 전적으로 협력한다. 4. 콜롬비아 정부는 민간우익 민병대 대원과 지도자에 대한 기소를 민간법정에 맡기고, 군부 내 협력인사나 동조자도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5. 콜롬비아 정부는 모든 코카와 아편 생산을 2005년에 제거할 전략을 수립한다. 이 전략에는 대안적 발전 프로그램, 수공 제조작업, 공중 제초제 살포, 환경에 무해한 미생물 제초제(마약 식물만 공격하는 제초제)의 살포, 마약생산 공장의 파괴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콜롬비아 육군 검찰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전 지역 군인들의 어긋난 행동을 조사해야만 한다(Isaacson 2001, 70-71).

자(neocon)들은 국내의 애국 여론에 힘입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을 대외 안보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이제 플랜 콜롬비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던 유럽 열강들의 눈치조차 두렵지 않았다. 자연스레 반테러 전쟁의 논리가 확산되자, 서반구에서 ‘마약테러리즘’(narcoterrorism) 논리는 기존의 마약전쟁(War on Drug) 논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제 마약 퇴치는 곧 봉기진압(counterinsurgency) 내지 테러퇴치(counterterrorism)로 바뀌었다(Tickner 2003).

9.11 테러 한 달 뒤인 10월 10일에 국무부의 테러퇴치 담당관인 프랜시스 테일러는 “서반구에서 가장 위험한 국제 테러그룹은 바로 콜롬비아혁명군(FARC)”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장관 콜린 파월과 미국의 콜롬비아 대사 패터슨도 콜롬비아 내부의 무장 세력들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테러 조직들이라고 주장하였다. 9.11 테러 정세 아래에서 곧 테러리즘과 마약 그리고 무기밀매를 연결시키는 ‘마약테러리즘’(narcoterrorism)이란 조어가 탄생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무장 세력으로 게릴라 단체인 FARC(1만 7천명 규모), ELN(4천 내지 5천명 규모)과 우익 민병대 조직인 AUC가 지목되었다. ‘마약테러리즘’ 논리는 9.11 테러 정세 아래에서 새로운 탄력을 얻게 되었다.

2002년 2월 20일 콜롬비아의 파스트라나 행정부가 추진했던 FARC와 정부의 힘겨운 평화협상이 실패로 끝나자, 파스트라나 대통령도 곧 워싱턴의 ‘마약테러리즘’ 논리를 수용하였다. 이전까지 파스트라나는 게릴라 세력을 ‘테러리스트’라고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이어서 5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은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국민들은 강경파인 알바로 Uribe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고, 그의 당선으로 이 마약테러리즘 논리는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sup>5)</sup>

하지만 이런 논리에도 맹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FARC가 코카와

5) Uribe 정부를 역사적 시각에서 조망한 글로는 Hylton(2003)을 참조하시오. 힐튼은 이 글에서 콜롬비아 게릴라 전쟁의 장기화를 보수양당 정치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없이는 미국의 군사원조나 강력한 대테러 전쟁은 제한된 효과를 가질 뿐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코카 페이스트(coca paste)에 대해 과세를 하고, 그 자금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편법을 쓰고 있지만, 이들이 마약카르텔이 하듯이 마약을 수송하고 유통시키는데 개입한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의 마약단속국(DEA)도 이 게릴라 단체를 국제마약 카르텔로 보지는 않는다. 반면 민간우익 민병대인 AUC가 마약거래에 개입한 사실은 명백하다. 플랜 콜롬비아 이래 미국은 엄청난 군사원조와 상당한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카 필드가 줄지 않고, 콜롬비아 내전만 격화시켰다는 점에서 미국의 마약 전쟁과 마약테러리즘 논리의 효능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 II.4. 안데스 지역 이니셔티브(ARI)

‘플랜 콜롬비아’는 2002년에 들어와서 ‘안데스 지역 이니셔티브’(ARI: Andean Regional Initiative)로 재명명되었다. 이미 13억 달러의 예산 가운데 2000-2001년 두 해 동안 8억 6천만 달러가 콜롬비아에 집행되었다. 이 가운데 군사원조가 75% 가량 되었다는 점은 위에서도 지적하였다. 하지만 군사원조 비중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조야에 일자, 이번에는 군사 대비 경제 원조의 비중을 높이는 조치를 취했고, 이와 더불어 플랜 콜롬비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인접 6개국에 대한 지원도 포함시켰다.

국무부는 8억 8천 2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ARI를 군사 대 경제 원조의 비중을 50:50으로 균형을 맞추었다. 하지만 콜롬비아가 받는 부분 가운데 군사원조 비중은 63%나 된다. 전년도의 원조액 가운데 미 집행액으로 2002년으로 이월된 금액을 합치면 ARI는 총 10억 4천 1백만 달러가 된다. 당연히 군사원조에 차지하는 비중도 57%로 높아진다. 이 가운데 콜롬비아에 돌아갈 몫은 5억 2천 6백만 달러로, 이 중 71%가 군사원조에 해당한다. 여전히 군사원조액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접국가로 영향을 받은 나라들도 원조 수혜대상이 되었다. 특히 브라질(345%), 파나마(220%), 베네수엘라(144%), 페루

(82%)가 군사원조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로 크게 증액되었고, 반면 에콰도르(63%), 볼리비아(20%)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증가하였다. 크게 증가한 지원액은 주로 콜롬비아의 내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국들의 경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sup>6)</sup>

페루의 군부는 주로 해군의 해상경비 강화, 공군과 경찰의 장비 업그레이드에 도움을 얻게 되었다. 반면 에콰도르는 군과 경찰의 훈련, 병참지원, 커뮤니케이션 등에 도움을 받았다. 또 미국 공군은 태평양 연안의 '만타'를 초계비행을 위한 중간기지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볼리비아는 코카 재배 지역인 차파레에 병영을 건립했고, 여기서 미군들로부터 마약퇴치 훈련을 받게 되었다.

반면 브라질 경찰은 2002년 처음으로 상당액의 마약퇴치 원조를 받게 되었다. '코브라 작전'이라 불리는 콜롬비아 접경지역 강화에 주로 원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군부가 없는 파나마 역시 대 콜롬비아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경찰이 장비와 훈련을 받게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지난 50년간 사용료 없이 주둔해온 카라카스의 티우나 요새 사령부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해, 미국과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하지만 마약문제에 관한 한 미국은 국방경비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 III. 마약전쟁의 효과

#### III.1. 코카 생산량의 증가

미국의 공급 부문 중시 정책은 엄청난 군사원조와 제초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제초제를 뿌린 지역이 엄청나게 방대했지만, 코카 필드가 전혀 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

6) 이하는 주로 Adam Isacson and Joy Olson(2003)을 참조하였다.

듯이 1990년대 중반까지 코카의 주산지는 볼리비아와 페루였다. 하지만 콜롬비아에서 대규모 마약 카르텔이 약화되고, 페루와 볼리비아 양국과 콜롬비아를 잇는 공중선(air bridge)이 붕쇄되자, 코카 필드가 자연스럽게 콜롬비아로 이동하였다. 콜롬비아의 중남부 과비아레 지역에서 코카 생산이 활성화되자, 미국은 1995년부터 이 지역에 대대적인 제초제 살포를 실행하였고, 1990년대 말엽에 이르러 이 지역의 생산량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코카 생산량은 푸투마요 지역 주변의 남서부를 중심으로 두 배나 늘어나는 역설을 낳았다. 1995년에 코카 재배지가 50,900헥타르였는데 반해, 1999년에 이르면 103,500헥타르로 늘어났다. 코카 필드는 제초 비행기 통제구역을 넘어서 게릴라가 통제하는 남부 지역 깊숙이 이동하였고 주변으로 산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푸투마요에 대한 제초 활동을 집중한다고 해도 또 다른 지역이 대체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제초 비행기와 코카 필드의 전쟁은 마치 숨바꼭질 놀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표 1> 안데스의 코카 생산

(단위: 헥타르)

국가/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콜롬비아	50,900	67,200	79,500	101,800	122,500	136,200	169,800	144,450
볼리비아	48,600	48,100	45,800	38,000	21,800	14,600	19,900	24,400
페 루	115,300	94,400	68,800	51,000	38,700	34,200	34,500	36,600
합 계	214,800	209,700	194,100	190,800	183,000	185,000	223,700	205,450

출전: U.S.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March 2003. p. II-16.

### III.2. 인권침해

국무부의 2001년 판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 사살당한 민간인 숫자는 3,7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민간우익 민병대가

자행한 학살자 숫자가 70%를 점한다. 이 민간우익 민병대는 일반적으로 콜롬비아 정규군의 18개 대대 가운데 절반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도 161건의 학살이 있었고, 1,021명이 살해되었다. 2001년 한 해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된 사람은 하루 평균 20명꼴이나 된다. 아울러 남부 지역의 농민들 가운데 275,000명에서 347,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작전상 이유로 소개되어 생업을 잃게 되었다.

현재 4천 5백만 명의 전체 인구 가운데 난민 숫자가 290만 명가량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한다. 지난 5년간 콜롬비아에서 농촌지역의 폭력 사태로 집을 떠난 난민 숫자는 1백만 명이 넘는다. 미국의 원조가 압도적으로 군사적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당한 코카 농민들을 구제하는 ‘대안적 농업’ 기금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불만도 점차 고조되고 있고, 지역별로 정부와 미국의 시책에 항의하는 데모대의 시위도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FARC가 요인 납치와 코카 농민에 대한 세금 부과와 같은 탈법행위를 한다면, 정부의 보안요원들과 민간우익 민병대는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주 하는 편이다.<sup>7)</sup> 하지만 이 남부 지역에서 국가와 관료제는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에, 민간우익 민병대가 준국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효율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명목으로 보안요원과 민간우익 민병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흡수하여 1996년 9월 미국 의회는 민주당 리하이 의원이 발의한 세칭 ‘리하이 수정법안’(Leahy Amendmen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권탄압에 연루된 장교를 재판에 회부한 콜롬비아 정부의 조치를 미국무부 장관이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미 정부는 해당 군부 예하 단위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수 있게

7) 콜롬비아에서 폭력이 시민사회에 만성화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서술과 해설로는 Bergquist, Penaranda, and Sanchez(eds.)(1992), Pecaut(2002), Adelman(2002), Hylton(2003)을 참조하시오. 대부분의 논자들은 콜롬비아 양당 정치의 실패에서 찾고 있다.

되었다. 이제까지 이러한 일방조치를 ‘군부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던 콜롬비아 군부도 이 리하이 제약조건을 수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제공된 원조의 대부분은 주로 국립경찰 쪽에 배정되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시도된 ‘플랜 콜롬비아’는 미국이 마약전쟁의 파트너로 국립경찰 보다는 군부 쪽으로 이동해 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콜롬비아는 이 계획으로 12억 달러의 원조를 받게 되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비용이 마약퇴치 대대의 훈련과 장비에 투입되는 군사 부문 원조였고, 비군사용 할당액은 불과 25%에 그쳤다. 당연히 원조 자체가 인권침해에 연결될 여지가 그만큼 컸다.

2002년 6월에 미 의회가 이미 지출된 예산이 인권침해에 사용된 부분이 없음을 입증해 달라고 행정부에 요구했다. 이 ‘리하이 조건’(Leahy conditionality)에 따르면, 콜롬비아 군부는 인권침해에 관여한 장교들을 정직시키고 기소해야만 했다. 또 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재판소의 관할권이 적용되어야만 했다. 이와 더불어 군부와 민간우익 민병대 집단 사이의 연계를 명백히 단절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도 취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적 국익이 문제가 될 때 위 조건을 연기할 특권이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이 문제를 유야무야시킬 수 있었다. 그만큼 군사원조와 인권침해의 연계 고리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알바로 Uribe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콜롬비아 정부의 대 게릴라 소탕작전은 강도를 더해갔다. 2002년 8월, Uribe 대통령은 비상조치 상태를 선포하고 대통령 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로 인해 경찰과 군부의 사법 관할권은 확대되었고, 군부의 입김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Uribe의 초강수 정책이 실효를 거두리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 III.3. 국가의 약화

2002년 9월에 발표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따

르면 허약한 국가는 테러리스트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마약과 테러리즘을 퇴치하고,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은 콜롬비아 군부들 도와야만 한다. 즉 군부가 영토적 통제권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콜롬비아 국가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표명하였다.

콜롬비아의 국가는 오랜 전통의 후원-수혜 관계, 보수 양당의 장기 집권 등으로 인해 허약한 전통을 지녀왔다. 이 허약한 국가는 1990년대 마약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이와 더불어 미국의 ‘마약전쟁’의 요구에 부응하느라고 더욱 허약해졌다. 콜롬비아 정치에 마약 카르텔의 개입은 자연스레 정치적 부패와 폭력을 만연시켰고, 이로 인해 국가의 폭력 독점도는 그만큼 약화되었다. 마약 카르텔, 게릴라, 민간우익 민병대의 난무로 콜롬비아 사회의 정치적 폭력은 더욱 사사화되었고, 공적 권위는 그만큼 실추되었다(Restrepo 1992). 콜롬비아의 일간지 <엘 티엠포>(El Tiempo)의 2002년 6월 28일자에 실린 세계의 기사를 보면 ‘통치 불가능의 위기’(crisis of ungovernability)가 얼마나 심각한 지 잘 알 수 있다.

“민족해방군(ELN)의 관할 아래에 있는 시청. 나리뇨 주의 폐놀에서 게릴라들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한다. 반군은 수요일부터 공무원들을 도로정비 사업에 투입하고, 여성들에게 식사를 준비시키고 있다. 시청은 텅 비었다. 27명의 공무원들은 필기구, 등록부, 컴퓨터 대신에 곡괭이와 삽을 들고 일을 한다. 민족해방군의 ‘남부 공동체 주민’ 전선에 소속된 게릴라들은 수요일 아침 8시에 시청 청사 앞에서 집결하였고, 시청을 폐쇄하는 강제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시청 직원들을 도로의 정비사업에 투입시켰다.”

“민간우익 민병대(paras: paramilitares의 준말)의 부패분자 위협. 부카라망가의 우익 민병대 고급간부들은 이 도시에서 부패한 마피아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익 민병대의 위협이 월요일에는 범죄자와 마약상용자들에게 가해졌다. 하지만 수요일에는 부카라망가의 노조지도자 12명, 그리고 시민운동 리더들을 위협했고, 그리고 어제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부패한 공무원들을 위협했다. 페드로는 이

렇게 말했다. 만약 부패와 적들이 설득과 화해란 방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곳 부카라망가나,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이들 국가 마피아들 다수를 제거해야만 한다. 정치가들이 공공사업, 보건, 교육, 공공 서비스에 할당된 예산을 훔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아이러니이다.”

“시청의 봉쇄. 원주민들은 팬암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았다. 페에세 원주민들은 칼도소의 독직을 비난하면서 그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칼도소는 공금을 유용했고, 원주민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부추겼다. 데모대는 이 군청의 행정을 접수하려고 한다. 이 군청 인구의 80%가 페에세 사람들이다”(Estrada 2003).

미국의 플랜 콜롬비아는 마약카르텔의 박멸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 큰 암세포는 발견하여 제거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미 지역 곳곳에 작은 카르텔들이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메테인 카르텔이나 칼리 카르텔이 해체되었지만, 폭력의 강도나 마약의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 카르텔을 대체한 중소형 조직들은 수평적으로 분산되면서 눈에 잘 띠지 않게 되었고, 보다 세련된 전략으로 기존의 거래 방식을 대체하였다. 이 때 생긴 시장의 공백 일부를 FARC와 같은 게릴라 단체, AUC와 같은 민간우익 민병대 세력이 채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의 약화 과정에 미국의 마약 정책도 분명히 일조하였다. 미국이 공급 영역에서 마약을 차단하려는 정책은 마약 문제를 안보 쟁점으로 이해하게끔 했다. 안보 문제로 이해된 마약 정책은 곧 콜롬비아에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협력을 얻으려는 위협적인 일방주의 정책으로 변하기까지 했다. 미국은 마약 카르텔로부터 선거자금을 접수한 것으로 소문난 삼페르 정부를 몰아붙여,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콜롬비아 국내사정을 무시한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정당성을 크게 실추시켰고, 허약한 국가를 더욱 약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96-97년에 미국은 콜롬비아의 조치들에 대한 인증을 거부

(decertification)함으로써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삼페르 정부를 압박했다. 이러한 압력에 마지못해 삼페르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제초제 살포, 마약 카르텔에 대한 공격 조치를 강화시켰다. 하지만 1994년부터 1998년에 본격적으로 실행한 고엽제 살포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코카 밭과 양귀비 생산량은 늘어만 갔다. 이와 더불어 고엽제 피해가 큰 남부 콜롬비아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야기시켰다. 대안적 농업 프로그램도 없이, 고엽제를 살포하고, 농민들을 소개시키는 작업은 생각보다 후유증이 컸다. 농민들은 점차 FARC를 지지하게 되었으며 FARC는 이 지역에서 혁명세를 거두는 등 ‘준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의 일방주의 조치들은 FARC를 약화시키지도 못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역설을 낳았다.

#### III.4. 지역 불안정

미국의 대규모 군사원조로 콜롬비아 정부와 게릴라 사이의 갈등이 증가하자, 인접국들의 국경 지대에도 폭력 사태의 여파가 감지되고 있다. 당연히 주변국들은 미국의 군사원조가 지역의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고 나섰다. 콜롬비아 남부의 푸투마요 지역에 대한 고엽제 살포가 시작되고, 게릴라와 마약퇴치 대대의 무력 갈등이 심화되자,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 브라질의 접경지대는 게릴라나 우익 민병대 세력들이 도피하는 안전지대로, 무기나 마약을 밀매하는 거래지로 바뀌었다. 국경 지대에는 콜롬비아 무장 세력들이 자행한 납치와 살해 사건도 증가했고, 고엽제 살포로 살 길을 잃은 코카 재배 농민들의 난민 물결도 밀려들어 왔다.

베네수엘라의 국경지대 마을에는 월경한 게릴라 세력들에 의한 납치와 강탈 사건이 거의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차베스 대통령은 미 공군의 영공 이용도 거부하며, 콜롬비아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마약전쟁을 비판해왔다.

에콰도르에서도 1999년 말엽에 콜롬비아 무장 세력이 12인의 외국

인들을 납치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또 2000년에는 2천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케틸라와 우익 민병대 사이의 전쟁을 피해 영내로 도피해 왔다. 파나마에서도 미국이 운하지대(Canal Zone)에서 철수한 이래 케틸라와 우익 민병대 세력이 유입되어 치안이 엉망으로 변했다. 국방경비대 세력으로는 도무지 이들의 무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브라질 역시 국경 지대로 케틸라를 비롯한 무장세력들이 월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수비를 강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 코카 밭에 대한 고압제 살포로 코카 이파리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하여 페루를 비롯한 안데스 인접 국가들에서 코카 농사가 다시 증가일로에 있다. 공급 측면의 금압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플랜 콜롬비아가 안데스지역 이니셔티브로 바뀌어, 콜롬비아에 집중하던 원조가 다시 인접국들로 분산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도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인접국들은 미국의 플랜 콜롬비아 발표 이후에 국경지대의 군비를 증강하고, 콜롬비아의 무장 세력들이나, 난민들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미국 정책이 지역 불안정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미국의 마약전쟁에 협조적이었던 페루의 후지모리 전 대통령조차도 플랜 콜롬비아가 콜롬비아의 무장 갈등을 “베트남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었다.

2002년의 ‘안데스 지역 주도권’(ARI)에 인접국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역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일부나마 불식시키기 위한 미 정부의 노력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이들 나라 다수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는 힘든 실정이다.

#### IV. 결론

콜롬비아 국가는 이미 국내의 폭력 수준을 낮출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 이 허약한 국가는 심각한 ‘불안정의 딜레마’(insecurity dilemma)에 빠져 있다. 무장한 게릴라나 우익 민병대 세력은 이미 정치적 경기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들은 고위 정치인이나 성직자에 대한 납치나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2002년에만 해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잉그릿 베탕쿠르 후보가 납치당했고, 칼리 교구의 대주교인 이사야스 두아르테 칸시노가 암살당했다. 2003년 2월에는 전국방부 장관 힐베르토 에체베리, 안티오키아 주지사 기예르모 가비아리아가 암살당했다. 정부가 겪는 정당성의 위기도 심각하다. 의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심지어 경찰과 군인들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민들에게 안전과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능력도 크게 하락했다.

인권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만 있다. 매년 4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폭력으로 죽는다. 마약전쟁으로 이미 2백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납치되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다. 콜롬비아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불안정의 딜레마’에 빠진 사회세력들은 정부나 공적 제도를 믿기 보다는 개인적 해결책을 찾는다. 이들은 법률 송사보다는 뇌물이나 연줄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차라리 건뎌를 산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외국으로 도피해버린다.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멀리 떨어진 수도 보고타의 권위를 믿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무력 집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게릴라 세력이나 우익 민병대 세력에게 세금을 내고, 이들의 말을 따른다. 미국의 군사원조로 뿌려지는 고엽제로 농민들의 코카 농사가 망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미국과 정부를 원망한다.

미국은 이 허약해진 국가에 대해 군사원조를 통해 무력을 회복케 하고, 나아가 콜롬비아 중앙정부와 군이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길 원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플랜 콜롬비아는 바로 이런 목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마약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주의적 처방은 콜롬비아의 복잡한 현실을 무시하고,

군사적 문제로만 파악했다. 미 행정부는 콜롬비아의 내부 문제를 덮어두고 자신의 전략을 강요하였고, 마약문제를 과도하게 안보 쟁점화(over-securitization of drug problems)시켰다. “수용국에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협력을 얻어내라”는 일방주의 외교는 안정적인 레짐의 구축에 필요한 협상 과정을 무시해버렸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오류가 콜롬비아의 불안정 딜레마를 더욱 증폭시킨 것이다. 미국의 군사원조는 콜롬비아 내부의 폭력 수준을 더욱 고조시켰고, 허약한 국가를 더욱 약화시켰다. 나아가 코카 밭에 대한 엄청난 고압제 살포가 있었음에도, 반입되는 마약의 양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미국 역시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버린 것이다.

콜롬비아의 갈등은, 한 논자의 말처럼 ‘애매한 전쟁’(ambiguous war)이다(Gómez Buendía 2002). 게릴라 세력은 강력한 ‘무장’ 세력이지만,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납치, 사보타지, 세금 갈취를 통해 사회를 불안케 하지만, 결코 사회혁명이나 정치적 변화를 부르짖는 이념적 집단은 아니다. 농촌 지역에 암세포처럼 번식하고 있지만, 보고타를 노릴 만큼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을 무너뜨릴 군사행동은 필요하지만, 대상에 대한 접근은 보다 세밀해야 하고 정치적인 필요가 있다. 고메스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통한 대규모 군사행동 보다는 경찰을 통한 게릴라 척결이 훨씬 유효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군사 행동보다는 전쟁 지역에 무너져가는 지역 공동체를 건전하게 가꾸는 노력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게릴라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다. 마약 “전쟁은 이념적 차이보다는 콜롬비아 오지에 사는 일반 주민이 당면한 일상적 기회구조와 인센티브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이다(Gómez 2002, 4). 따라서 대체작물 경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한 고압제 살포는 농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코카 필드는 계속 이동하기 때문이다.<sup>8)</sup>

8) 고메스와 유사한 시각에서 콜롬비아의 갈등을 지정학적 차원에서 해부한 흥미로운 글로는 Gonzalez(2002)가 있다.

콜롬비아와 미국은 마약전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마약 퇴치에 관심이 있는 데 반해, 콜롬비아는 폭력의 종식과 평화가 궁극적인 관심이다. 마약과 폭력은 동일한 병의 두 증후군일 것이다. 보다 훌륭한 정책은 증후군을 보고 처방을 하지 않는다. 훌륭한 마약 퇴치 전략은 콜롬비아의 마약 생산의 '원인들'에, 미국에 난무하는 마약 소비의 '원인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학계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도 공급 측면의 마약 퇴치 전략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예산 투입액 단위당 효율성은 수요 측면이 훨씬 높다.<sup>9)</sup> 하지만 레이건, 부시, 클린턴, 부시로 이어지는 대 안데스 마약정책은 여전히 공급측면 압박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콜롬비아 연보

- 1982. 도시에 테러리즘과 마약거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막을 일련의 진압 작전이 이어진다. 하지만 MAS(Muerte a Secuestradores)와 같은 우익 민병대 세력(메데인 카르텔의 연계조직)도 진압 작전에 가담하는데, 이 조직도 마약거래에 개입했다.
- 1982. 5. 30. 보수당 후보 벨리사리오 베탕쿠르 쿠아르타스가 46.8%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자유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콜롬비아 정치의 특징인 양당정치의 균형이 이뤄지다. 베탕쿠르는 전통적인 친미 외교에서 벗어나 콜롬비아를 비동맹운동의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다.
- 1982년 6월 11일. 게릴라 단체 M-19는 정전을 실시하다.
- 1982. 11. 20. 국내 화전의 일부 조치로 게릴라에게 전면 사면을 부여

---

9) 1995년 랜드 연구소 보고서는 국내 마약상용자 치료에 1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해외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23 달러만큼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활 프로그램에 투여된 자금은 41% 증가했지만, 해외 투여금은 175%나 증가했다.(CIP 2002, 9).

- 하는 법률이 효력을 발하다.
1984. 4. 30. 법무장관 로드리고 라라 보니야가 마약 카르텔에게 암살을 당하다. 정부는 전국에 계엄령을 내리고, 이제까지 준수하지 않았던 미국과의 범죄인도조약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하다.
- 1985-87. 우익 민병대의 '살인 부대'가 애국연합(Union Patriótica: 1985년 게릴라 조직 FARC가 창당한 정당)의 당원들을 살해하는 캠페인이 벌어지다. 450명가량이 이 캠페인으로 사망하다.
1985. 6. 게릴라 조직 M-19가 공식적으로 정전 협정을 철회하다.
1985. 11. 6. M-19가 법무부 건물을 장악하여, 11명의 판사를 포함한 100 여명의 사람들이 사살되다. 이 사건으로 계기로 정부는 M-19와의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다.
1986. 3. 게릴라 단체 FARC와 정부가 무기한 정전협정에 서명하다.
1986. 5. 25. 자유당 후보 비르힐리오 바르코 바르가스가 58%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다. 바르코는 마약사범을 미국에 인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하다. 메데인 카르텔은 범죄인 인도 정책을 번복시키기 위해 일련의 폭력 캠페인을 시작하다.
1987. 10. FARC, M-19, ELN(민족해방군. 마오주의 게릴라 단체)를 포함한 6개의 게릴라 단체들이 '시몬 볼리바르 게릴라 협의체'(CGSB)를 결성하다. FARC와의 정전은 이전에 이미 끝을 맺었다.
- 1987 연말. 대법원은 콜롬비아와 미국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다.
1989. 1. 13. 정부와 M-19는 다시 직접 대화를 시도하다.
1989. 3. ELN, EPL, FARC, 모두 정부와 평화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다.
1989. 8. 메데인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에 의한 일련의 요인 암살 사건이 일어나자, 바르코 대통령은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다시 활성화시킨다. 미국은 12명의 주요 마약사범을 인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들 피인도 측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총력전’을 선언한다. 1990년 선거전에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한 루이스 카를로스 갈란이 이 달 메데인 카르텔에 의해 살해된다.

- 1989. 10. M-19는 무장해체와 해체하는 조건으로 완전 사면을 얻는 협정을 정부와 맺다. M-19는 공식적으로 정당조직인 ‘민주연합-M-19’(AD-M-19)로 변신한다.
- 1990. 3. AD-M-19의 대통령 후보 카를로스 피사로가 1989년 8월 이래 후보로는 세 번째로 암살되다. 애국연합의 후보 베르나르도 하라미요도 암살되다.
- 1990. 5. 27. 자유당 후보 세사르 가비리아 트루히요가 47.4%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다. 메데인 카르텔은 요인 납치는 계속하지만, 게릴라식 공격은 멈춘다. 가비리아 대통령은 피랍자들이 풀려나고, 카르텔 대원들이 항복한다면 범죄인 인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한다.
- 1990. 11. 9. 새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73석의 제헌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다. 자유당은 24석, AD-M-19는 19석을 얻었지만, 보수당은 9석에 머문다.
- 1991. 2. 5. 새 헌법이 발효되다.
- 1991. 6. 19. 메데인 카르텔의 두목인 과블로 에스코바르가 당국에 자수하다. 그는 미국이 인도해주길 가장 바랐던 인물이었다. 그는 살인 등으로 기소되었지만, 메데인 외곽에 그를 위해 만든 특수감옥에 구금된다.
- 1992. 7. 에스코바르가 탈옥하다.
- 1992. 11. 8. 90일 동안의 비상사태가 선포된다. 칼리 카르텔에 연루된 마약관련 폭력 사건이 다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메데인 카르텔이 부분적으로 약화된 다음 칼리 카르텔은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한다. 에스코바르의 탈옥도 부분적으로 폭력 사태의 재발에 영향을 준다.

- 1993. 12. 보안군과 메데인 카르텔 사이의 총격전에서 에스코바르가 사살되다.
- 1993. 12. 30. 미군 분견대가 인도주의 차원이란 명목 아래 바예 델 카우카에 파병되다.
- 1994. 2. 28. 가비리아 대통령이 미군의 파병 문제를 상원과 상의도 않고 결정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국가위원회의 결정이 있자, 미군은 철수하다.
- 1994. 6. 19.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자유당의 에르네스토 삼페르 피사노 후보가 50.4%의 지지로 당선되다. 보수당의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아랑고 후보는 48.6%의 지지를 얻다.
- 1994. 11. 17. 정부는 게릴라 그룹들과 무조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다.
- 1995. 8. 16. 게릴라 그룹들이 부추긴 일련의 폭력 사태가 증가하자 정부는 9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다.
- 1995. 9. 11. 알바로 벨란디아 우르타도 준장이 현직에서 물러나다. 정부가 인권침해로 기소된 고위 장교를 처벌하긴 처음이다.
- 1995. 11. 2. 저명한 보수당 정치인의 암살이 있던 뒤 다시 90일간 비상사태가 선포되다. 이 조치는 1996년 1월과 4월에도 계속 연장이 된다.
- 1996. 국방부 장관 페르난도 보테로, 대통령 선거 당시 재정책임자였던 산티아고 메디나, 전직 자유당 상원의원 마리아 이스키에르도가 선거 당시 유입된 마약 자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관계로 모두 구금형에 처해지다. 검찰총장 오를란도 바스케스 벨라스케스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기소되다. 그도 곧 마약 자금에 관련된 죄로 8년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 1996. 6. 12. 마약사범들이 삼페르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돈을 댔다는 사실을 삼페르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콜롬비아 의회가 대통령을 비호하다.
- 1996. 7. 11. 미국 행정부는 삼페르 대통령이 마약거래의 확산을 저

- 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의 미국 여행 비자를 취소하다.
1996. 8. 30-31. FARC와 ELN이 시작한 대공세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다.
1996. 9. 정부는 수천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여 케릴라 그룹 박멸에 나서다.
1996. 9. 10. 부통령 움베르토 델 라 카예는 삼페르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언급하고 사임하다.
1997. 5. FARC가 포로로 잡은 70명의 정부군의 석방을 위하여 카케타 주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안에 정부가 동의하다.
1997. 9. 27. 정부의 대대적인 공세로 652명의 FARC 케릴라가 죽고, 1,600 여명이 생포되다.
1997. 11. 우익 민병대 그룹에 의한 공격이 크게 증가하다. 8일 동안 47명의 사람이 살해되다.
1998. 5. 케릴라, 우익 민병대 그룹에 의한 폭력 사태 확대에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항의 데모를 하다.
1998. 6. 21. 보수당의 파스트라나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50.4%를 얻어 당선되다.
1998. 7. 9. 대통령 당선자 파스트라나는 FARC의 지도자 마누엘 마를란다 벨레스와 비밀회담을 갖고, 90일간 남부의 5개 군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하다.
1998. 10. 파스트라나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 197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 공식방문에 나서다.
1998. 10. 18. ELN은 안티오키아 주의 석유 송유관을 공격하여 적어도 66명의 민간인이 희생되다.
1998. 11. 7. FARC가 보안군에 대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부 5개 군 총 42,000 평방킬로미터를 비무장지대로 만들다.
1999. 1월 중엽. FARC가 평화회담을 중지하다. 이들은 월초에 있었

- 던 130 여명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이 우익 민병대 세력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다.
1999. 1. 7. 정부와 FARC 사이에 평화회담 준비모임이 산 비센테 델 카구안에서 공식적으로 열린다.
1999. 2. 파스트라나 대통령은 비무장 기간을 3개월 연장하다. ELN 과 계획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다. ELN은 그 책임이 볼리 바르 주의 4개 지역을 비무장 지대화하길 거부하는 정부 측에 있다고 주장하다.
1999. 4. 9. 우익 민병대 그룹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고참 장교가 강제로 전역하다.
1999. 4. 12. ELN은 46명이 탑승한 국내선 항공기를 하이재킹하다.
1999. 5. 6. 파스트라나 대통령과 마를란다가 미래 평화협상을 위한 포괄적 의제에 합의하다. 비무장 해제 기간은 다시 연장되다.
1999. 5. 26. 국방부 장관 로드리고 요레다가 FARC에 대한 양보에 불복하고 사임하다.
1999. 5. 30. ELN은 칼리의 한 성당에서 미사를 보던 140 여명을 납치하다.
1999. 6. 18. 파스트라나 대통령은 ELN에 대한 정치적 승인을 철회하고, 인질들의 석방이 미래 평화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못 박다.
1999. 7. 17. 정부와 FARC 사이의 협상이 무기한 연기되다. 양자는 비무장 지대에 대한 국제사찰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하다.
1999. 10. 19-20. 정부 대표단과 ELN 대표단이 쿠바의 아바나에서 회동하다.
1999. 10. 24. 파스트라나 대통령이 국제참관인단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자, 정부와 FARC와의 협상이 라 우리베에서 재개되다.
1999. 11. 게릴라 세력이 13개의 마을에 대한 공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FARC와의 협상은 계속되다.

1999. 12. 20. FARC는 22일간 일방적으로 정전을 선언하다.
2000. 1. 29. 정부와 FARC는 미래 평화협상의 형식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다.
2000. 4. 20. 남부의 볼리바르 주에 비무장지대를 만들기로 ELN과 합의에 도달하다.
2000. 4. 30. FARC는 새로운 정당인 '신 콜롬비아를 위한 볼리바르주의 운동'(NBNC)을 창당하다.
2000. 7. 미국 의회는 플랜 콜롬비아로 알려진 13억 달러 원조 안을 승인하다. 이 원조는 보안군과 사법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콜롬비아 국가를 강화하고, 코카 제초 및 작물 대체를 통해 마약 생산을 금압하기 위한 것이다.
2000. 8. 30.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콜롬비아를 방문하다. 하지만 데모대는 콜롬비아에서 미국이 하는 역할에 대해 항의한다.
2000. 9. FARC는 콜롬비아에서 코카 생산의 중심지인 푸투마요 지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여 코카 밭에 대한 고엽제 공중살포를 저지시킨다.
2000. 11. 14. FARC는 평화회담에서 철수하고, 정부가 우익 민병대 조직인 AUC(콜롬비아통합우익 민병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다.
2001. 1. 플랜 콜롬비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다.
2001. 2. 볼리바르 주에서 1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ELN에 대한 비무장 지대의 설립에 반대하여 평화적으로 시위하다.
2001. 2. 8-9. 파스트라나 대통령과 마를란다가 공식적인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다. FARC의 비무장 지대 이용 기간이 9개월간 연장되다.
2001. 3. 9. 정부가 볼리바르에 대해 군사적 공세를 가하자, ELN은 정부와의 평화회담을 중지하다.
2001. 5. 국방부와 경제개발부의 장관들이 사임하다.
2001. 5. 15. 민간우익 민병대 조직 AUC에 속한 것으로 알려진 사병들이 200 여명의 농장 노동자들을 납치하다. 이는 4월에 있

- 었던 석유 노동자들을 ELN이 납치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2001. 6. 5-28. 정부와 FARC가 포로들을 교환하다.
2001. 8. 7. ELN과의 평화회담이 재개된 바로 후에 정부는 비무장지대 창설을 위한 세부조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상을 중지시킨다.
2001. 8. 12. 세 명의 아일랜드 시민이 FARC가 통제하는 비무장지대에서 체포되다. 이들은 아일랜드공화군(IRA)과 연계되어 있다고 알려졌고, 폭탄 제조 기술 전수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2001. 9. 24. 전직 문화부 장관 콘수엘로 아라우호 노게라가 FARC에 의해 납치되다. 그는 후일 살해된 채로 발견된다.
2001. 10. 7. 정부는 FARC의 비무장지대 이용기간을 2002년 1월 20일까지 연장한다.
2002. 2. 23. 산소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여성 정치인 잉그릿 베탕쿠르가 게릴라 세력에게 납치되다.
2002. 5. 26. 자유당의 독립 후보 알바로 우리베 벨레스가 53%의 높은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다. 게릴라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유권자들의 호응을 끌었기 때문이다.
2002. 8. 12. 우리베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아울러 게릴라 척결을 위한 전쟁을 위해 한시적으로 목적세인 부유세를 신설하다. 이미 정부는 정보망을 확대하고, 아라우카, 볼리바르, 수크레 주를 포괄하는 두 개의 보안지역을 지정하다.
2002. 12. 게릴라 단체와의 협상을 모두 중지한 정부는 대신에 우익 민병대 세력과 평화협상을 시작한다.
2002. 12. 유엔은 콜롬비아의 코카 경작이 252,000 에이커로 전년 대비 약 35% 줄었다고 보고하다.
2003. 2. 7. 보고타 부유층 주거지의 사고 클럽에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30 여명이 죽고, 150 여명이 다치다.
2003. 4. 헌법재판소는 우리베의 비상계엄령(2002년 8월 이후 두 번

- 이나 연장되었다)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다.
2003. 5. 5. 전직 국방부 장관 힐베르토 에체베리, 안티오키아 주의 주지사 기예르모 가비리아, 그리고 군인 8명이 암살당하다.
2003. 6. 새로운 반테러법이 통과되어, 전국의 치안 관할권이 군에게도 허용되다.

## Abstract

United States policy in Colombia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since the adoption of the Plan Colombia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But the “war on drugs” has failed to reduce the production, trafficking, and consumption of illicit substances. In all these areas Washington's action may actually have made an already grave situation worse. The production of coca leaves increased and the fields crossed the neighboring borders destabilizing the regional security. Human rights abuses also increased with militarization of the drug war among guerrilla forces, paramilitary groups, and Colombian army. Central government's penetration also nearly broke down in remote towns near the southern and oriental part of the country.

The paper tries to explore the reason why the Plan Colombia and its approach has failed. The world-view that has shaped United States' twin war on drugs and terrorism looks too narrow to handle the complex problems Colombia faces. National security, defined exclusively in military terms, has taken precedence over equally significan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siderations. United States policy will continue to be ill equipped to assist Colombia in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its current crisis until the over-securitized realist perspective undergoes significant changes. A more enlightened public policy mix would focus less on the security problem itself and more on the causes of violent

drug production in Colombia and also on the causes of drug consumption in the United States.

Key Words: Plan Colombia, Narcoterrorism, Andean Regional Initiative, Narcoguerrilla, Leahy Conditionality / 플랜 콜롬비아, 마약테러리즘, 안데스 지역 이니셔티브, 마약게릴라, 리하이 조건.

논문투고일자: 2005. 09. 04

심사완료일자: 2005. 10. 15

게재확정일자: 2005. 11. 22

## 참고문헌

- 잉그리드 베탄쿠르(2003), 『콜롬비아의 딸 잉그리드 베탄쿠르』, (이은진 옮김), 뿌리와 이파리.
- Adelman, Jeremy(2002), "Andean Impasses," *New Left Review*, No. 18, November/ December. pp. 41-72.
- Bagley, Bruce M.(2001), "Narcotráfico, violencia política y política exterior de Estados Unidos hacia Colombia en los noventa," *Colombia Internacional*, No. 49-50, febrero, Bogotá. pp. 5-37.
- \_\_\_\_\_, (1992), "Myth of Militarization: Enlisting Armed Forces in the War on Drugs," in Peter Smith(ed.), *Drug Policy in the Americas*, Boulder: Westview Press. pp. 129-50.
- Bagley, Bruce M. and Juan G. Tokatlian(1992), "Dope and Dogma: Explaining the Failure of U.S.-Latin American Drug Policies," in Jonathan Hartlyn, Lars Schoulz and August Varas(eds.),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in the 1990s. Beyond the Cold War*,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p. 214-34.
- Bergquist, Charles, Ricardo Penaranda and Gonzalo Sanchez(eds.)(1992), *Violence in Colombia: The Contemporary Crisis in Historical Perspective*, Wilmington, Delaware: Scholarly Resources Inc.
- Cepeda Ulloa, Fernando(2002), "Le role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dans les processus de paix en Colombie," *Problemes d'Amerique Latine*, No. 1044, printemps. pp. 81-100.
- Chipman, John(ed.)(2003), *Strategic Survey*, Oxford University Press.
- CIP's Colombia Project(2002), "Why We Oppose the Andean Regional Initiative," <http://ciponline.org/colombia/092401.htm>(2003. 9. 20. 접속).
- Estrada Gallego, Fernando(2003), "Los Estados en Colombia," *La Jornada Semanal*, 13 de abril.

- Gómez B., Hernando(2002), "Colombia's 'Ambiguous War': Towards a Multidimensional Way-out,"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Colombia's Ambiguous War in Global and Regional Context" Miami, March 24-26.
- González, Fernan E.(2002), "Colombia entre la guerra y la paz: Aproximación a una lectura geopolítica de la violencia colombiana,"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Vol. 8, No. 2, mayo-agosto. pp. 13-49.
- Guillermoprieto, Alma(2002), *Looking for History*, New York: Bintage Books.
- Hylton, Forrest(2003), "An Evil Hour: Uribe's Colombia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Left Review*, No. 23, September-October. pp. 51-93.
- Isaacson, Adam(2001), "La asistencia estadounidense a la seguridad en los países de la región andina, 2001-2001," *Colombia Internacional*, No. 49-50, febrero, Bogotá, pp. 63-81.
- Isaacson, Adam, and Joy Olson(2003), "A Quick Tour of U.S. Defense and Security Relations with Latin America and Caribbean", <http://ciponline.org/facts/1101jtf.htm>(2003. 9. 20. 접속).
- Jarry, Irene(2002), "Colombie: La Présidence de tous les dangers," *Politique Internationale*, No. 97, automne, pp. 305-22.
- Labrousse, Alain(2002), "Drogue et terrorisme: Les liens du sang," *Politique Internationale*, No. 97, automne. pp. 379-392.
- McLean, Phillip(2002a), "Colombia-Thinking Clearly about the Conflict: A Discussion Paper," *Policy Papers on the Americas*, XIII, Study 7, October.
- \_\_\_\_\_(2002b), "Colombia: Failed, Failing, or Just Weak?"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 Pecaut, Daniel(2003), "Guerre, processus de paix, polarisation politique," *Problemes d'Amerique Latine*, No. 1044, printemps, pp. 7-30.

- Restrepo, Luis Alberto(1992), "The Crisis of the Current Political Regime and Its Possible Outcomes," in Berquist et al.(1992). pp. 272-92.
- Shifter, Michael(1999), "Colombia at War," *Current History, March*.  
\_\_\_\_\_ (2002), "A Shaken Agenda: Bush and Latin America," *Current History*, February, pp. 51-7.
- Tickner, Arlene B.(2003), "Colombia and the United States: From Counternarcotics to Counterterrorism," *Current History, February*.  
\_\_\_\_\_ (2001), "Tensiones y consecuencias indeseables de la política exterior estadounidense en Colombia," *Colombia Internacional*, No. 49-50, febrero, Bogotá, pp. 39-61.
- Zirnite, Peter(1998), "The Militarization of the Drug War in Latin America," *Current History*, April. pp. 166-73.